내 생애의 기념비적 순간들

(창48:1~22)

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생애의 기념비적 순간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생애의 기념비적 순간들'

여러분! 혹시 캐리 그랜트(Cary Grant)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또 하나의 이름을 거명해 보겠습니다. 베티 데이비스(Bette Davis)를 아세요? 모르시죠.

또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 보겠습니다.

숀 코네리(Sean Connery)를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비비안 리(Vivien Leigh)를 아십니까? 1930년대 배우인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캐리 그랜트는 1960년대에 할리우드를 주름잡던 남자 배우 중의 한 사람입니다. 1962년에

007 제1탄 “살인 번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어 007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리 그랜트가 캐스팅되는데, 시리즈 영화를 찍기가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하게 되면서 숀 코네리에게 007 제1탄의 주인공 자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숀 코네리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름 없는 무명의 신인 배우였지만, 영화 역사상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007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고, 캐리 그랜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193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주인공 역에 베티 데이비스가 캐스팅 되는데 베티 데이비스가 이 역을 거절하고, 영국에서 온 신인 배우인 비비안 리에게 이 스칼렛 오하라 역이 넘어가고 베티 데이비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비비안 리는 이 기념비적인 영화와 함께 아직도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톰 셀렉(Tom Selleck)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배우가 아닙니다. 1980년대에 이 바닥 용어로 남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배우에게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캐스팅 되는데 TV 시리즈물에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상 바빠서 거절하는 바람에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에게 역이 넘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단역 배우였던 해리슨 포드를 일약 A급 스타로 만들어주게 되고, 톰 셀렉은 이 영화를 거절한 것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비슷한 주제인 모험 영화 “중국으로 가는 길”에 출연을 하는데 흥행에 실패하면서 톰 셀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한 생(生)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념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순간들이 있고 그것들을 손에 쥐고서야 이 세상을 깨끗하게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렇지만 딤후4: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합니다.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의 순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념비적으로 남아있었으므로 깨끗하게 떠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념비적인 일이고, 김영삼 장로님과 이명박 장로님도 기념비적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건이 주님 앞에 가서도 과연 기념비적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기념비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으로 내 생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고, 그것을 쥐고 갔는데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념비적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순간들을 톰 셀렉이나 베티 데이비스, 캐리 그랜트처럼 놓쳐버린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가 배우로서 기념비적인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고 이게 배우의 전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애에서 나 자신에게 만이라도 기념비적인 순간이 없고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주님께서도 내 생애를 기념할만한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선민이 아니지요.
선민이 아닌 사람들의 생애를 볼 때 칭기즈칸도 천하를 창조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념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알렉산더 대왕에게서 기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고,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 박사가 장애인이면서도 탁월한 지능을 발휘해서 창조론을 거부하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서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죄악은 기억이 되겠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무지렁이 같은 보통 인간에게도 분명히 기념비적인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세 가지를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아프다는 전갈을 받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총리로서 병문안을 온 아들과 손자를 보고 야곱이 병상에서 몸을 추슬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3-4절에서 그 옛날 7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의 약속을 복으로서 해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10번, 20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연히 자식들 모아놓고 다 했겠죠.
두 번째로 5-6절에 가면 뜬금없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낳은 두 아들이자 자신의 두 손자를 아들로 입적하겠다고 하는데 아들의 항렬에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인데 레위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 지파로 빠지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손자 항렬에 있어야 할 자들인데 아들 항렬로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라헬이 에브랏(베들레헴)에 못 미쳐서 길가는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에브랏 길가에 장사지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요셉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의미와 연관이 없습니다.
이제 147세가 되어서 눈도 어둡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잘 못 봅니다. 요셉이 이끄는 대로 손자를 껴안게 되는데, 연세가 많고 정신이 혼미해서인지 옛날이야기며, 두 손자를 아들로 입적하겠다는 이야기며, 요셉도 뻔히 알고 있는 요셉의 생모인 라헬이 죽어 장사지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생애에서 기념비적인 순간들을 찾아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를 아들의 항렬에 올린 이유부터 찾아봅니다.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이라고 야곱이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낳은 두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권을 쥐고 다스리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있는 동안에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고 전혀 몰랐던 일이죠. 이제 147세가 되어 죽는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이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의 구간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소개된 인생의 처음부터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자기의 주체성으로 인생을 도배한 사람이고, 어느 한 구석도 예외 없이 야곱 자신의 주체성을 쥐고 스스로 좋은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극복하려 하고, 극복할 수 없으면 피해가려 하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속여가면서 까지 탈취하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도배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도 야곱의 생애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의 생애 속에 포함되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애를 도배하고 있는 자기 주체성에 구멍이 난 부분이라는 것이고, 자기 주체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던 주체성 제로의 영역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으니 요셉에 대한 사랑도 죽고, 걱정도 죽고, 기대도 죽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과 기대와 관심과 이끌려는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이 주체성인데, 그 주체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제로의 상태가 되었고, 자기 인생의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체성으로 도배했는데 그 요셉에 관한 부분만은 구멍이 뻥 뚫려버렸고 그 구멍 속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막힘없이 들어옵니다. 자기로 인해 막히고 방해됨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만 그 구간이 채워지고, 자기의 생애가 끝나는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념비적인 순간을 붙잡는데,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을 추구해왔던 자기 생애 전체를 다 놔두고, 자기 주체성이 제로였던 그 구간의 삶을 붙잡고 그 기념비적인 삶의

구간의 실질적인 증거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지파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죽은 줄 아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해서 그것을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루스 들판에 돌베개 베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는 왜 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28:20-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리베이트가 일어나는데 그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오셔서 약속하시고, 많은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체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애는 그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무대로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의 주체성이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만큼은 제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루스 벌판에서 나타나셔서 주체적으로 자신을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자기의 주체성으로 도배하는 바람에 막고 방해하고 있는 동안에 요셉의 경우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주체성이 제로가 되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완전히 발휘되었던 그 순간만이 자기의 인생에서 기념비적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마음으로 깨닫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내게 대하여는…" 이라는 서두를 붙이고 시작합니다.
'나에 관해서는'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유는 앞에 루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주체적 계획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주체적인 계획이 나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으로 나에게 기념할만한 유일한 구간이었다는 것이고, 내가 인생의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인생을 도배

한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으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만지기에 좋은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추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노동을 어려운지 모르고 노력했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잡기위해 살았다는 것인데, 그 결과로 14년 동안 사랑해서 얻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때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아들을 낳고 죽으니 슬프죠. 그런데 라헬이 죽자마자 그 아들을 받아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고 그 의미상 권세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내가 죽으며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죽었는데, 그 아들을 받아서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꾸고 그 라헬을 에브랏 길가에 묻었고 '나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열정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도배하며 살았던 인생의 결과는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어머니인데 '너의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고 라헬이라고 합니다. 요셉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이라고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 자신의 생애를 보게 하는 것이고, 요셉 앞에서 자기 생애의 의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스 들판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체적인 계획으로 다 하실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는 바람에 하나님이 못하고 계시다가,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기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하셨으니, 내 삶의 전체 영역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의 주체성에 방해받지 않고 나타난 이 부분만이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순간과 내용이 될 수 있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인생의 의미는 14년간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길가에 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레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 매장지에 묻었고 나는 라헬이 아닌 레아의 옆으로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열정과 주체성으로 도배된 삶의 결과물로는 앞으로 죽어서 갈 그곳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길가에 묻은 라헬로 상징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했고 열심히 추구했던 생의 결과가 그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기념비적인 순간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기에 마음 안에서 요셉에 대한 어떠한 주체성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걱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었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표현된 그 때가 바로 내 인생에

서 기념비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주님의 삶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기념비적인 순간들을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여생(餘生)은 가능한 기념비적인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대상들과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소원을 가져다주는 가질만한 좋은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마음이 팔려간 요셉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요셉에 대한 주체성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들이 야곱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앞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채워져 나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표현된 그런 순간들은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야곱의 생애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칭송하는 것도 147세가 된 야곱으로서는 달갑지도 않고 별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 주체성이 제로 된 그 자리에서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이 순간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손에 쥐어진 재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걱정과 판단으로 좋은 것들을 결정해서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쫓아간다면 얻었어도 결국 라헬이고, 라헬처럼 길가에 버려지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캐리 그랜트가 007 제1탄의 주인공 자리를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어리석게 기념비적인 순간들을 다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십자가 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선민이기 때문이고, 선민의 삶은 야곱이 기념비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순간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기념비적인 순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진짜 재산은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에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게 소중한 모든 대상과 문제들 앞에서 야곱이 요셉에 대해 마음이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주체성이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켜짐으로 내 생애가 기념비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